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방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 평가나 정치 공학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몫이라면, 유권자로서 개인은 각자의 삶을 이어 가야 한다. 2018년 7월 1일 새해를 출발하는 이들은 4년이라는 시간표를 짜겠지만, 시민들은 그저 자신의 생활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지방 정부가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삶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방 선거와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층위의 구분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대다수는 이러한 구분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자치가 제대

정치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

로 되기 위해서라도 상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청와대 청원계시판으로 갖고 가는 현상이나, 공약을 살펴보면 기초의원과 광역단체장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자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초 단위로 갈수록 비전으로 포장된 '허언'이나 망상이 아니라 진짜 지역 현안이 담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 의원은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민원 중재자이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여전히 지역에서 정치 영역은 소수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은 민원을 통한 만남과 지지로 연결된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인이 '민원인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는가.

지방 의원은 단순한 민원의 해결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이끌어 가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인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모으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주민 자치와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 지방 의원은 권력의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사회와 함께 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부족한 지방 재정 안에서 지방 정부와 함께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누가 무엇을 잘하느냐 혹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의 능력이나 업적 위주의 생각이 지역 사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지역 전문가가 많지만 정작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드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를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보통 인간이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로 의·식·주·를 꼽는다. 실제로 이 세 가지는 인간 삶의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이 곧 정치 활동이다.

의식주 문제가 물질적 측면에 해당된다면, '더 나은 삶'으로서의 정치는 비물질적인, 즉 정신과 영혼에 해당되는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시설을 만들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미소로써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곧 시작하는 지방 정부 4년에는 단순한 민원 해결, 재건축, 도로 확장, 복지 정책 등의 사업과, 정책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과 공간, 마을과 교육,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 건강 한 혈관이 흐르는 지역 공동체를 꿈꿔 본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정치는 곧 예산과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수단과 무기를 갖고 개인의 일상을 디자인하는 고도의 기술이자 작업이다.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지역 사회에서 비록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러한 정치를 꿈꿔 본다.

社說

지방의회 일당 독점 과거 폐해 답습 안 된다

6·13 지방선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에서도 여당에 아깝없는 지지를 보였다. 그렇게 해서 광주·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72.4%인 21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정 정당 이 단체장을 싹쓸이할 경우 일당 독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 의회의 일당 독점은 단체장보다 훨씬 심하다. 광역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23석 가운데 22석이 민주당 후보를 차지했다. 전남도의 회도 58석 중에서 54석이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전체 광역 의원 81명 가운데 93.8%인 76명이 여당인 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 독식 현상은 3·4인 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진출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던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5개 구 기초의회 비례 9석이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단체장과 이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같은 당 일색일 때 나타나는 폐해를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목격해 왔다. 지난 여섯 번의 지방 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은 집행부와 의원들이 같은 소속 정당일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면서 지역 의회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파생한 평화당이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는데 이번 선거 결과 2년 만에 다시 일당 독점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7기를 앞두고 지역민들은 특정 정당이 독식한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선된 일부 의원들은 후보 시절 걸었던 당 단체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수기라는 과거 폐해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의원들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민선 7기 출범 전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해야

6·13지방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당선인들은 감·경의 수사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공명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총 276건, 506명의 출마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군·구 의원은 물론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등도 포함돼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1월 '민주당 광주시장 당선 명부 유출에 개입 또는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관리 당원들에게 고발당한 상태이며,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도 경선 과정에서 ARS 지지 호소 논란이 불거져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함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김삼오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은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밖에 흑색선전,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500여 명의 출마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무고나 흑색선전은 기중 처벌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민선 7기 출범 전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이 길어져 단체장이 법원을 들러거리며 임기를 다 보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도 집중 심리 등의 수단을 통해 엄정하되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장헌균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의 사도, 고(故) 문익환 목사님께

나라고 농담이 아니라고/이건 진담이라고// (종락)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 있다고 생각하니/ 이머리가 말짱한 것들이/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닳으러 가는 거지"

목사님이 1989년 첫세벽에 쓴 시를 이렇게 다시 읽어봅니다. 목사님은 '잡포대 아닌 잡포대'를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벌써 24년이 되었군요. 이제 잡포대가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판문점 선언'을 했지요.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셨는지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통일은 됐어,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이라고!' 외치는 것을 꿈에서 보았지요.

목사님! 이날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를 넘어 평화로, 적에서 동반자로 한반도 평화의 첫발이 시작되었지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비핵화와 북체제 보장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통일의 일꾼들이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한 알의 밀알처럼 씹어져서 죽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목사님은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통일의 불을 지피주셨지요. 민중회의 심장이지요.

올해는 목사님 태어나신지(1918년 6월 1일)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친구인 윤동주 시인은 지난해 탄생 100주년이었지요. 하늘나라에서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계신지요.

'백두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내 조국의 일월'이길 바라며 '늦봄' 목사님, 한반도에 마침내 늦봄이 왔지요. 참 신영복 선생님도 목사님을 '겨레의 늦봄'이라며 "민족을 보듬는 가슴으로/ 민주를 어깨동무하는 팔뚝으로 / 민중을 묶어 세우는 맨발로/ 진달래 꽃길 따라 불타는 단풍다라/ 이 산천 굽이굽이 사랑으로 죽음을 사는 분이다// 그래서 문익환 선생은/ 더디 오시는 늦봄이다/ 그러나 문익환 선생은/ 어김없이 오고야 말/ 새 봄이요/ 새 날이다"라고 했어요.

늦봄 목사님! 목매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놓으며 1994년 1월 18일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새삼스런 하루'이지만 '꿈을 비는 마음'으로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두 하늘 한 하늘', '통일을 비는 마음', '꿈이 오는 새벽녘'에 '가슴으로 만난 평양' 등 작품을 다시 읽어봅니다. 통일은 우리 앞에 있지만 아직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늘나라 주님 곁에서 계속 지켜보시고 기도해주시길 두 손 모아 빌면서 살림으로 평화 인사드립니다.

기고

현대차 빛그린 국가산단 참여 환영한다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사장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 내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공장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광주 지역 기업인으로서 대한영하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기업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광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동차 메카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공장 사업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이미 검증됐고 이를 통해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탁 생산 업체인 마그나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이 슈나이더 공장에서 매년 20만대 이상 완성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벤츠,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위탁을 받아 완성차를 생산하고, 모방,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 기술을 일컫는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이 주를 이루던 3차 산업혁명에서 연결·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첨단 정보통신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의 지능 수준에만 머물까?

최근 LG경제연구원의 '인공 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60만 명 중 1136만 명이 향후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고위험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판매직·기계 조작과 같은 3대 고위험 직업에 전체 고위험군 일자리의 70%가 몰려 있고,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제조업 등에 약 60%가 집중돼 있다.

인공 지능이 오히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직업은

기고

인공 지능, 어디까지 가고 있니?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와 학습, 모방,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 기술을 일컫는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이 주를 이루던 3차 산업혁명에서 연결·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첨단 정보통신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의 지능 수준에만 머물까?

최근 LG경제연구원의 '인공 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60만 명 중 1136만 명이 향후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고위험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판매직·기계 조작과 같은 3대 고위험 직업에 전체 고위험군 일자리의 70%가 몰려 있고,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제조업 등에 약 60%가 집중돼 있다.

인공 지능이 오히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직업은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IT 산업 분야 같은 특정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얘기 일 뿐이다.

인공 지능이 위협하는 것은 일자리뿐 만이 아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능에 맞춰 인간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기 까지의 단계로 성장했다. 미국 HBO에서 제작한 드라마 '웨스트 월드'에서는 인공 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인간들이 주입한 가지 기억과 생각을 스스로 발전시켜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진짜 인간이라 믿고, 창조주인 인간에 반란을 일으키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인공 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생활이 전보다 편리해졌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공 지능과 진짜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인공 지능 기술이 적재적소에 쓰이되 인류를 풍요롭게 해주는 선에서 유익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령현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학년

無等鼓

축구는 단순한 경기다. 골을 넣거나 골을 막으면 된다. 규칙도 간단하다. 공에 손을 대면 안 되는 핸드볼 금지(골키퍼 제외)와 공은 차도 사람을 치면 안 되는 반칙 금지. 그제 전부터, 물론 오프사이드 규칙이 조금 복잡하긴 하다.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같은 편 선수가 패스하는 순간, 자신과 상대 골대 사이에는 상대 선수가 최소한 두 명(골키퍼 포함) 있을 때에만 공을 잡을 수 있다는 이 규칙도, '동일선상'이라는 개념만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전제 조건도 거의 없

다고 한다. 사람들은 TV를 통해 경기를 보며 감독의 작전과 선수들의 플레이를 평가한다. 그래서 '월드컵 때면 한국에는 5천만 명의 국가 대표 감독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낯은 정치 적폐를 청산했다.

이제부터 한 달간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고 월드컵 축구의 매력에 빠져 보자.

한국은 본선 32개 팀에 당당하게 오른 월드컵의 주인공이다. 비록 F조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지만 월드컵의 매력에 빠져 보자.

한국은 본선 32개 팀에 당당하게 오른 월드컵의 주인공이다. 비록 F조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지만 월드컵의 매력에 빠져 보자.

/유재만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월드컵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p> <p>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p> <p>편집부 220-0649</p> <p>정치부 220-0632</p> <p>사회부 220-0642</p> <p>사회 2부 220-0652</p>	<p>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p> <p>문 화 부 220-0661</p> <p>문화미디어부 220-0664</p> <p>체 육 부 220-0697</p> <p>사 진 부 220-0693</p>
<p>경 영 자 율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p> <p>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p> <p>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